



[곁도는 AI국가 전략]
교수 없는
AI대학원 될라
겸업 금지에 '손사래'
03

✓ 노인진료비 31조→58조 ✓ 국내 미유입 해외소득 75% ↑ ✓ 근로소득 세수 10년 새 3배

활기잃은 韓경제… 쪼그라든 재정, 근로자가 메웠다

해외 유보소득 작년 5600억
이중과세에 국내투자 감소

근로소득 세수는 3배 늘어
과세제도 전반적 개선 필요

초고령 사회를 앞둔 대한민국의 보건·복지 지출이 폭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근로자 세금은 늘고 있지만 기업의 국내 투자는 줄어들면서 국가재정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경제가 겉 잡을 수 없이 악화되기 전 과세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6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진료비는 31조6527억원이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에 속한다. 앞서 200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2%를 차지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17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기업의 해외유보소득 현황〉

사업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잠정)
금액(억원)	3,211	4,623	3,852	4,633	5,606

/국세청

14.2%인 711만명에 달해 '고령 사회'로 들어갔다. 2025년에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바뀔 전망이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

초고령 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 2025년 국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57조944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어 2035년에는 123조288억원에서 2060년 337조1131억원 등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건보공단은 경제협력개발기

구(OECD)의 지출 추계모형을 토대로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구조·건강상태·사망 관련 비용 변화 등을 고려한 요인별 예측 방법을 적용해 노인진료비를 추계했다.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노인 진료비는 2009년 총 진료비의 31.6%인 12조4236억원에서 지난해 총 진료비의 40.8%인 31조6527억원으로 10년간 22조 2291억원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40%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도 같은 기간 257만 4000원에서 454만4000원으로 늘었다.

보건·복지 증대와 비례해 근로 소득 과세도 늘어나는 추세다.

대안정치연대 대표 유성엽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3조4000억원 이던 근로소득 세금 수입은 지난해 38조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2면에 계속〉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美 체이스 센터에 걸린 삼성 스마트 사이니지

삼성전자가 미국 프로 농구팀 '골든 스테이트 워리ور스'의 홈경기장인 '체이스 센터'에 초대형 LED 스크린을 포함한 스마트 사이니지를 대거 설치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5일(현지시간) 체이스 센터에서 열린 시범경기에서 초대형 LED 스크린을 시범 운영하는 모습.〈관련기사 6면〉

/연합뉴스

구직자 5명 중 3명 “하반기 취업경기 악화 체감”

채용기업 줄고 인원도 축소
절반 “내년엔 더 나빠질 것”

구직자 5명 중 3명은 올해 하반기 취업 경기가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 수가 전년보다 감소해 구직자들이 체감하는 구직난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잡코리아가 올 하반기에 구직활동을 한 신입·경력 구직

자, 아르바이트생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1.2%는 '구직난이 더 악화됐다'고 답했고 '여느 때와 비슷하다'는 답변은 36.5%였다. 반면, '구직난이 완화됐다(취업경기가 좋아졌다)'는 응답자는 2.3%에 불과했다. 특히 경력 구직자 그룹에서 '구직난이 더 악화됐다'(65.7%)는 답변이 더 높았다.

취업 경기가 더 나빠졌다고 느

끼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 수가 줄고 채용인원이 축소돼서'(53.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입사지원 경쟁률이 높아져서'(29.4%), '임금, 근로조건 등이 더 나빠져서'(22.8%), '입사지원자격요건이 더 까다로워져서'(20.6%), '구직시장 경기가 좋지 않다는 뉴스 등을 자주 접해서'(17.6%) 등의 순이었다.

대다수 구직자(97.7%)는 추

업 경기 악화에 따라 구직활동에 영향을 받았다고 했고, 그 영향으로는 '기준보다 눈높이를 낮춰 입사지원했다'(47.9%), '입사지원 횟수를 더 늘렸다'(40.6%)는 의견이 많았다.

내년(2020년) 취업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50.5%)', '올해와 비슷할 것'(39.7%) 순이었고,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답변은 9.8%에 그쳤다.

/한용수 기자 hys@



社告

메트로경제 '2019 제약·바이오 포럼'

다시 바이오!

-혁신의 파이프라인

K-바이오가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로 기대를 모았던 모았던 토종 바이오 기업들이 연이어 글로벌 임상 3상 실패를 발표한 탓이다.

코오롱티슈진 '인보사'가 주요 의약품 성분이 뒤바뀌며 품목 허가 취소를 받은 후, 신라젠의 페사벡에 이어 헬릭스미스가 개발중이던 당뇨병성신경병증 치료제 후보물질인 '엔젠피스' 까지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연기했다.

기대가 높은 만큼 실망은 컸다. 바이오라면 무조건 추종하던 투자심리도 바이오라면 무조건 기피하는 '바이오 포비아'로 차갑게 돌아섰다. 이제 막 태동을 시작한 한국 바이오 산업도 동력을 잃을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아직 희망을 잃기엔 이르다. 정부는 혁신 바이오의 약품의 신속 허가를 위한 '첨단바이오법'을 통과시키고, 바이오를 차세대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연간 4조원을 투입하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국내에는 여전히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도 존재하다. 이들은 산업의 부침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연구와 투자로 혁신 파이프라인을 구축해가고 있다. 실체 없이 부풀었던 거품이 사라지고 나면, 이러한 진짜 바이오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2019 제약·바이오 포럼'을 통해 바이오 산업이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토종 바이오 벤처들이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해 글로벌 대형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자 한다.

◆주제 : 다시 바이오-혁신의 파이프라인

◆일시 : 10월 24일(목) 오전 9시~12시

◆장소 : 서울 중구 을지로5길 19 페럼타워 페럼홀(3층)

◆주최 : 메트로경제

◆등록 : 메트로경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당일 카드결제 가능)

◆문의 : (02)721-9826 또는 forum@metroseoul.co.kr

올 시총 톱10 절반 교체 포스코·SKT 등 밀려나

올해 상장사 시가총액 순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10위권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바뀌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코스피 우량주도 주가변동이 커다는 의미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일 기준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작년 말과 올해 6월 말에도 10위권에 위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등 6개다.

이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검찰 수사 영향으로 시총 순위가 12위로 밀려나 한동안 10위권 밖에 머물러 있었다. 결국 10위권을 지킨 종목은 5개 정도. 지난해 말 10위권에 포함된 종목 가운데 포스코(POSCO)와 SK텔레콤, 한국전력은 현재 각각 11위, 12위, 16위로 내려 앉았다. 한편 올해 시총 10위권에 새로 들어온 종목은 현대모비스와 LG생활건강, 신한지주 등 3개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